



펜티엄 III PC '고객몰이'



▲ 삼성전자의 매직스테이션 M6200.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 3차원 게임의 보급 등에 따라 고기능 멀티미디어 PC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도 개인용 컴퓨터 가운데 가장 성능이 우수한 펜티엄 III PC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삼성전자, 삼보컴퓨터, 대우통신 등 국내 PC업체들은 최근 각광받는 펜티엄 III PC 시장의 선점을 위해 잇따라 신제품을 개발, 대대적인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다.

PC제조업체들이 최근 2백30만~3백40만원대에 선보이는 펜티엄 III PC는 그래픽·사운드처리 등 70여종의 멀티미디어 명령어 기능을 갖춘 미국 인텔사의 450MHz와 500MHz 펜티엄 III 중앙처리장치(CPU)를 탑재, 기존 펜티엄 II PC에 비해 처리속도가 크게 빨라지고 디지털 영상 재생 등 멀티미디어 기능도 대폭 향상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말 펜티엄 III CPU를 장착한 매직스테이션 'M6100'을 선보인 데 이어 최근 절전기능을 강화한 매직스테이션 'M6200' 시리즈 2종을 3백만원대에 시판하기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시장 선점을 위해 서울 용산전자상가 등에서 대규모 로드쇼를 펼쳤다. 대우통신은 최근 펜티엄 III 450MHz와 500MHz의 CPU를 탑재한 대우코러스 2개 모델인 'CT6480-450K'와 'CT 6480-500K'를 개발, 2백60만원대에 판매를 시작했다. 대우통신이 선보인 기종은 64MB(메가바이트)의 기본메모리, 32배속 CD롬 드라이브 등을 장착했다.

삼보컴퓨터는 3월 초 펜티엄 III 450MHz CPU와 64MB 기본메모리, 40배속 CD롬 드라이브 등 최고급 사양을 갖춘 '드림시스 9450'을 개발, 고급 사용자를 대상으로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LG-IBM도 최근 인터넷을 윈스톱으로 접속할 수 있는 '다이렉트 인터넷' 기능과 3차원 입체영상 재생기능 등을 갖춘 '멀티넷i 펜티엄 III'를 3백40만원대 가격으로 선보였다. LG-IBM은 제품 구입자에게 인터넷 무료방문교육과 인터넷 1년 무료이용권을 제공하는 대대적인 판촉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진컴퓨터랜드는 최근

펜티엄 III 칩을 탑재하고 17인치 모니터를 기본 제공하는 '진돗개 2000'을 2백39만원에 내놓고 저가 보급형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월 말 국내 처음 등장한 펜티엄 III PC는 가격도 높고 홍보도 안돼 매기가 많지 않았으나 최근 펜티엄 II PC와의 가격차가 30만원대로 좁혀지면서 펜티엄 III PC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휴대폰 무선 인터넷시대



▲ 휴대폰망을 이용한 무선 인터넷시대가 열렸다.

무선으로 인터넷을 향해서 '무선 인터넷시대'가 열리고 있다. 휴대폰 5사는 최근 휴대폰 자체로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휴대폰과 노트북PC, 개인휴대단말기(PDA)를 연결, 정보를 검색하는 무선 인터넷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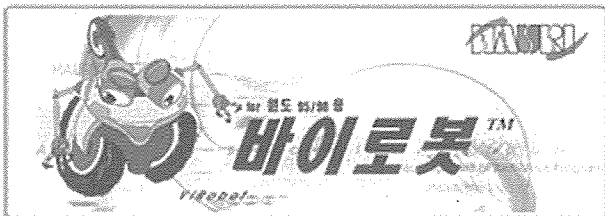
SK텔레콤(011)은 011 휴대폰망을 통해 초당 한글 1천8백자를 전송할 수 있는 28.8kbps급 고속 무선 인터

넷 서비스를 5월부터 시작했다. 웹 브라우저를 설치한 노트북PC 사용자들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011 가입자들은 한번 클릭으로 인터넷에 무료로 접속할 수 있다.

한솔PCS는 제이텔과 공동으로 손바닥만한 개인휴대단말기(PDA)와 018PCS망을 연결한 무선PDA서비스인 '클릭월드'를 5월 초부터 시작했다. 한솔PCS는 "전자메일을 주고받고 각종 계약서를 전송할 수 있으며 주식거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자편을 이용한 터치식이어서 인터넷 검색 및 전자메일 송수신이 매우 편리하다. 이용료는 PCS 음성통화(10초당 18원)보다 22% 저렴한 10초당 14원. PDA가격은 19만원선. 한국통신프리텔(016)도 세스컴과 공동으로 016망을 연결, 윈도운영체계를 갖춘 무선PDA서비스를 6월부터 개시한다.

LG텔레콤(019)은 5월부터 PCS폰만으로 직접 인터넷과 PC통신에 접속할 수 있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개시, 경쟁사들이 PDA나 노트북PC 등에 연결, 무선인터넷을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LG정보통신이 스마트폰을 통해 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스마트폰 가격은 40만원대.

앞으로 주목해야할 바이러스



▲ 하우리가 개발한 CIH 백신프로그램 '바이로봇'.

전국 1백만대 이상의 PC를 '뇌사 상태'로 빠뜨리며 '바이러스 대란'을 몰고온 CIH(일명 체르노빌)바이러스를 두고 컴퓨터 바이러스 전문가들은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동안 맬리사, 파파 등 요란스러운 '경고 메시지'를 띄운 바이러스가 예상보다 미미한 파괴력을 보이자 PC 사용자들은 CIH바이러스에 대해 의례적인 경고로 받아들였다. 이같이 해이해진 컴퓨터 보안의식이 대형 참사를 불러왔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금세기 최악의 바이러스인 CIH 만큼 강력한 바이러스는 당분간 등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하지만 바이러스 감염으로 자료 하나만 손상을 입어도 개인에게는 치명적인 피해가 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철저한 대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게 공통된 견해.

안철수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와 (주)하우리 등 백신프로그램업체들이 경고하는 또 다른 바이러스를 살펴보자. 우선 앞으로도 '경계대상 1호'로 꼽히는 것은 CIH바이러스의 변종. CIH바이러스는 1.2버전으로 매년 4월 26일에만 활동을 하도록 제작됐다.

하지만 최근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CIH 1.3버전은 두달 뒤인 6월 26일을 활동개시일로 하고 있으며 1.4버전과 1.5버전 등은 아예 매달 26일 동작하도록 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CIH바이러스는 대만의 제작자가 소스파일(원자료)을 인터넷 상에 공개해 놓았기 때문에 네티즌들에 의해 다양한 변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더욱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워드97용 문서를 감염시키는 'Word97Macro.Ethan'과 'Word97Macro.Pri'도 앞으로 주목해야 할 바이러스. 각각 지난해 1월과 올 1월 유럽지역에서 최초로 발견된 이 바이러스들은 국내에도 등장했다.

워드 문서 제목을 'Ethan Frome'으로 변경시키는 등 그동안 작성했던 주요한 문서들을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 있다. 'Kenston.1895'는 윈도 파일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로 3월 국내에 침투했다. 감염된 파일이 파괴되지는 않지만 윈도프로그램을 '거북이'처럼 더디게 실행하도록 만든다.

지난해 11월 국내에서 변형이 발견된 HPS바이러스는 CIH에 비해 2배 이상의 감염속도를 보인다. 윈도98 전용인 이 바이러스는 감염될 때마다 그 형태가 변하는 다형성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백신프로그램의 진단을 어렵게 한다. 특징적인 증상은 감염된 시스템을 토요일에 종료시키면 로고를 뒤집어서 출력한다는 것.

전문가들은 "지금 국내에 출시돼있는 안철수연구소의 'V3 98프로', 하우리의 '바이로봇' 등 백신프로그램은 대부분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다"며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정기적으로 통신망 등을 통해 업그레이드 해야 안전하게 PC를 사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ATM 교환기개발 1백20억원 수출



▲ 비트로 직원들이 소용량 ATM교환기를 시연하고 있다.

가격파괴형 국제전화인 인터넷폰 등 별정통신상품의 요금을 5분의 1 수준으로 내릴 수 있게 하고, 성능은 10배 이상 올리는 최첨단 교환장치가 국내 신생 벤처기업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돼 화제다.

이 회사는 제품개발이 끝나기가 무섭게 통신장비부문의 선두주자인 미국시장에서 1백20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따내 통신업계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다. 비트로테크놀로지(대표 李光珉)는 최근 미국의 통신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다이얼로직사와 공동으로 꿈의 교환기로 불리는 비동기식전송모드(ATM) 교환기를 개발, 미국 통신업체와 1백20억원(1천만달러)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이 제품은 일반 전화회사에 사용되는 대용량제품이 아니고, 10만가입자 용량의 별정국제전화 전용 교환기다.

이 기종은 선·후불카드를 비롯해 가상사설망, 전자투표 등 각종 부가서비스구현시 별도 소프트웨어를 교환기에 설치했던 기존 교환기와는 달

리 교환기 자체가 이러한 부가기능을 갖추고 있는 게 특징.

이에 따라 전화에 각종 부가기능을 부여하고 음성과 데이터 동영상을 동시에 전송하는 멀티미디어서비스를 추가 투자비용 없이 교환기 내에서 구현하는 만능 전화국이 등장할 전망이다.

이 제품에 국내의 통신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노키아, 에릭슨, 알카텔 등 세계적 통신장비업체들이 한창 개발 중인 최첨단 기종이기 때문. 실제 이 ATM교환기를 채용, 별정국제전화를 제공할 경우 국제망 구성비용을 5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이를테면 6천만원을 투자한 기존 교환기가 월 2백만분의 국제전화를 착·발신할 수 있는 데 반해 6천만원을 들여 이 제품을 설치할 경우 최소 8백만분에서 1천만분까지 소화할 수 있는 것. 이는 데이터 전송효율이 기존 교환기보다 10~20배 가까이 높기 때문이다.

이사장은 "미국 현지에 설립한 기술연구소를 통해 이보다 10배 이상 성능을 개선한 제품을 내년에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02)567-4040

쇼핑몰에 '전문사이트' 러시

최근 들어 전문점 형

태의 인터넷 쇼핑몰 개설이 늘고 있다.

삼성SDS·한솔CSN·메타랜드·삼성물산·헬로우서울 등 인터넷 종합 쇼핑몰 운영업체들은 최근 전문영역의 단일 쇼핑몰 영입이 활성화되는 추세에 발맞춰 특정분야 상품과 서비스만을 집중적으로 취급하는 전문 쇼핑몰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개설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삼성SDS는 올초 기존 인터넷 종합 쇼핑몰 사이트인 유니플라자와는 별도로 게임 전문 쇼핑몰인 '도탈게임' 사이트를 개설한 데 이어 곧 완구 전문 사이트와 경매 사이트를 각각 개설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우선 완구 경우 레고코리아·영실업·에드워드 켈러·지나월드 등 제조사와 협력해 유니플라자 내의 완구 전문코너로 운영하며 경매사이트는 '유니플라자 경매장' (가칭)이라는 이름으로 별도 개설할 계획이다.

한솔CSN은 회원제 방식으로 통신판매와 인터넷쇼핑몰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한솔CS클럽과 별도로 최근 국내 쇼핑몰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물류전문 쇼핑몰인 '로지스클럽'을 개설했다.



▲ 한솔CS클럽의 홈페이지

로지스클럽은 인터넷상에서 화주와 물류서비스업체를 중개하기 위한 쇼핑몰 사이트로 창고·운송·택배 등 분야별 서비스업체의 가동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고객이 가장 효율적인 물류수단을 선택하도록 했다.

메타랜드는 몰 앤드 몰 방식으로 운영하는 기존 메타랜드 쇼핑몰이 중소기업 유치에 효과는 있으나 매출 기여도면에서는 미미했다는 판단에 따라 쇼핑몰 구성을 컴퓨터·여행·음반 등 주제별 전문영역에 따라 다시 나누는

방안을 마련, 해당 분야에서 독자적 영업력을 갖고 있는 업체와 협상을 추진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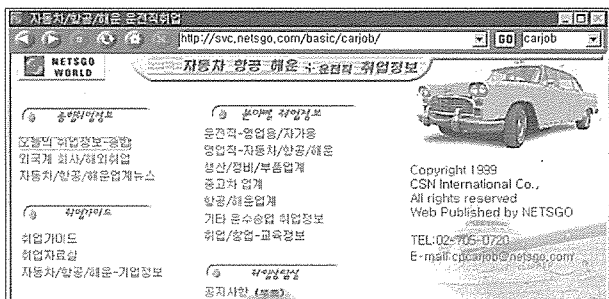
삼성물산은 최근 미국 아마존과 제휴해 인터넷 종합 쇼핑몰 사이트인 삼성몰에 서적코너를 신설한 데 이어 농축산물 전문 사이트를 추가로 개설할 계획으로 협력 대상업체를 검토하고 있다.

대흥기획은 인터넷 종합 쇼핑몰 사이트인 헬로우서울을 포털사이트 개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롯데백화점·종로서적·뮤직랜드·코스메틱랜드 등 기존의 쇼핑몰 사이트에 3~4개의 전문몰을 순차적으로 추가할 예정으로 협력업체 선정을 서두르고 있다.

국내 종합 쇼핑몰 운영업체들이 이처럼 전문 쇼핑몰 개설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아마존(서적)·온세일(컴퓨터)·이베이(경매) 등 전문영역을

개척한 해외 쇼핑몰이 이미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다 국내에서도 서적과 음반·컴퓨터 등 특정 영역의 틈새시장을 개척한 쇼핑몰 업체들의 매출 신장세가 두드러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넷츠고, 운전직 취업정보 오픈



▲ 넷츠고에서 제공하는 '운전직 취업정보' 홈페이지

SK텔레콤의 인터넷PC통신 넷츠고가 최근 자동차, 항공, 해운업계의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운전직 취업정보' (go carjob)를 오픈했다.

'운전직 취업정보' 서비스는 운전면허만 있으면, 비교적 취업이 쉬운 운전직을 중심으로 자동차, 항공, 해운업계의 취업정보를 종합하여 서비스하며, 국내의 운전직 이외에도 외국계 회사 및 해외교포 기업의 취업정보도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오늘의 취업정보, 외국계 회사/해외 취업정보, 자동차, 항공, 해운업계 뉴스 등을 제공하는 '종합취업정보'와 운전직, 영업직, 생산, 정비, 부품업체, 중고차 업체 취업정보 등을 제공하는 '분야별 취업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자동차, 항공, 해운관련 기업의 기업정보와 각종 취업 자료를 제공하는 '취업가이드'와 '취업상담

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무료 구직구인 신청란을 운영하고 있다.

'운전직 취업정보' 서비스는 유료서비스로 게시를 조회 건당 3백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

KOTRA, 북한경제 전문인터넷사이트 개설



▲ KOTRA가 제공하는 북한경제 전문 사이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북한의 경제·무역정보만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사이버 북한경제 정보센터' 웹사이트를 5월 초 개설, 업계를 대상으로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 사이트는 기존 북한관련 웹사이트와는 달리 북한의 경제·무역분야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최초의 웹사이트로 북한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이 사이트는 KOTRA의 전 세계 무역관에서 보고되는 최신 북한 경제 동향과 대북한 거래알선 정보를 다루는 '북한경제뉴스', 북한경제전문지를 게재하는 '북한뉴스레터', 북한의 상품, 기업, 대외무역동향 등 각종 통계와 산업현황이 소개되는 '북한경제자료' 등으로 구성됐다.

KOTRA 홈페이지인 디지털코트라 (<http://kotra.or.kr>)를 통하거나 <http://www.kotra.or.kr/nk> 로 직접 접속하면 된다. ㉞